

## 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 목표로 범부처 독서 민관협력 체계 운영,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실행체계 개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국민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변화도 관찰되었다.

- (디지털 매체 이용 증가)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 : '18년 96분 → '23년 120분 /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OTT) 이용률 : '18년 42.7% → '23년 77.0%
- \* 하루 평균 독서 시간(주중) : (성인) '17년 23분 → '23년 19분 / (학생) '17년 49분 → '23년 83분 (주말·휴일) : (성인) '17년 27분 → '23년 25분 / (학생) '17년 68분 → '23년 89분
- (전자책 독서율) (성인) '19년 16.5% → '23년 19.4% / (학생) '19년 37.2% → '23년 51.9%

###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도출

###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 인식 등 독서 관련 지표 개선 추진

이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다.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❶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❷ ‘독서습관 형성 지원’, ❸ ‘독서환경 개선’, ❹ ‘독서 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지표를 위주로 개선한다. ▲독서율은 '23년 43.0%에서 '28년 50.0%까지, ▲독서량은 '23년 3.9권에서 '28년 7.5권까지,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3년 67.3%에서 '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 첫 번째,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의 재발견 지원

먼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학업성취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 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태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인다.

## 두 번째, 책과 함께하는 전 생애를 위한 독서 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년기’를 대상으로는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고자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세 번째,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게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IP)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한다.

### 네 번째, 다 함께, 새롭게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 체계도 고도화한다.

#### < 범부처 분과회의 운영(안)>

분과명	참여 기관	주요 논의 주제(안)
문해력	문체부, 교육부, 여가부, 출판독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독서기반 문해력 제고 콘텐츠 제작 방송 송출, 캠페인 추진</li> <li>• (장기) 문해력 제고를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 민·관 공동 개발 및 보급</li> </ul>
독서 진흥 인프라 확충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출판독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확충 및 다각화</li> <li>• (장기) 민·관 협력 독서 인프라 확충(지역서점, 유희시설 등 활용)</li> </ul>
독서 소외인	문체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군부대 대상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시범 시행</li> <li>• (장기) 치유·치료 연계 독서 진흥사업 발굴</li> </ul>
독서습관 형성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정규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공동 개발</li> <li>• (장기) 정규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고도화</li> </ul>
지역사회 독서기반 강화	문체부,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지자체 독서진흥조례 제정 현황 파악, 실태조사 등</li> <li>• (장기) 지자체 합동평가 독서부문 개선</li> </ul>

\* ('24~'25년) 분과회의 구성, 협업과제 발굴, 협업과제 예산 확보 / ('25년~'28년) 협업과제 시범실시 후 본격 추진

독서 정책 실행체계도 개선한다.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다층적 의견수렴으로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출판과 도서관, 독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관계자들과 협력해 연구조사와 자문을 통해 4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5회에 걸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를 통해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회에 걸친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내실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다. '23년 9월에는 국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독서 진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파악했고 '24년 2월에는 교육청 독서담당자 회의, 광역대표 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3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다듬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국민독서올 제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가칭)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 '세계 책의 날'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정책 본격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에,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한다. 관련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 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http://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에서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가칭)인문정신문화축제, (가칭)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준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며,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독서진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진흥 정책과 도서관진흥 정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따로 붙임 1.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2. 제4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정보그림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성은 (044-203-3241)
		담당자	사무관	윤아람 (044-203-3245)

